

교수마저 환자 곁 떠나나... 전남대·조선대의대 280여명 사표

교수 비대위, 오늘과 내일 중 교수회의 열어 최종 대응 논의 사직서 일괄 제출 위법 소지 있는 만큼 방법·시기 조율키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에 대한 반발로 전공의가 떠난 광주 상급종합병원 일선을 지켜 온 전남대·조선대의대 교수 28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3월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남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3월 25일부터 전남까지 전체 교수 400여 명(병원 임상 교수·해의 연수자 포함) 중 55%에 해당하는

22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일찌감치 비대위를 결성한 조선대의대에서도 전체 교수 161명 중 68명(42%)이 사직서를 냈다. 전남대·조선대의대 교수 비대위는 각기 4월 1일과 2일 교수회의를 열어 최종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일단 취합한 사직서를 일괄 제출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는 만큼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를 다시 조율키로 했다. 의대 교수들까지 병원을 떠나겠다고 예고하

면서 정부는 지난 3월 25일부터 공중보건의·군의관을 2차 투입했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3월 11일과 25일 2차례에 걸쳐 파견·배치된 군의관·공보의가 총 11명이다. 조선대병원도 지난 3월 25일 처음 파견 인력을 지원 받았다. 실무 교육을 거쳐 이날부터 일선 진료과에 배치된다. 그러나 전공의 대거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 해소에는 역부족이라고 병원들은 전했다. 특

히 환자 생명이 오가는 중요한 응급 수술에서 필수적인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대다수가 이탈한 데다, 기존 마취과 전문의들의 피로 누적도 심각하다. 의료 취약 지역인 전남도에서는 지난 1차 공중보건의의 차출 23명이 이어 이번에도 22명이 상급종합병원에 파견됐다. 전체 도내 공중보건의의 17%에 해당하는 수로, 농어촌 지역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 **오유나기자**

학부모 10명 중 7명 이상 “의대 겨냥한 ‘지방 유학’ 늘어날 것”

■ 종로학원, 입시설명회에서 학부모 설문조사 공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고 지방 고교 출신만 지원 가능한 ‘지역인재 선발전형’ 확대에 나서자, 80%에 가까운 학부모가 이를 겨냥한 ‘지방 유학’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종로학원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에서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입시 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은 지난 27~28일 학부모 144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앞서 20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분 결과 발표 이후 이

뤄진 조사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늘어난 의대 정원의 82%인 1639명을 비수도권 대학에 배분하고 나머지 18%는 경기와 인천 지역에 나눠줬다. 서울은 동결했다. 동시에 지방의대가 소재한 권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3년 동안 재학해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전형 모집비율을 전체 60%까지 높이

지방의대 지역인재 60% 이상 권고...과반 충청 선호 응답자 90.5% “의대 증원으로 입시 선호도 커질 것” “정원 유지시 2023년생 대입서 합격선 5.8%로 하락”

도록 권고하고 있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 중·고교 6년을 지역에서 살아야 한다.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대 26개교는 신입생의 40%(강원·제주 20%) 이상을 반드시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이미 강원대, 경상국립대, 제주대 등이 비중 확대와 무(無)수능 전형 도입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 학생이 지방으로 이동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는지 묻자, 응답자 19.1%는 ‘매우 그렇다’, 56.4%는 ‘그렇다’고 했다. 75.5%가 긍정 답변한 것이다. ‘변화 없다’는 응답자의 15.6%였다. 부정 응답인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각각 7.7%, 1.2%였다. 학원 측은 수도권 지역 학생들이 지역인재 전형을 의식해 이동을 한다면 가장 선호할 지역도 함께 물었다. 수도권 거주 학부모 57.8%는 충청 지역을 택했다. 이어 강원 13.9%, 대구·경북 12.2%, 부산·울산·경남 11.9%, 호남 2.4%, 제주 1.7% 순이었다. 수도권에 가까울수록 선호했고 호남 보다는 영남을 선호한 것이다. 비수도권에 살고 있는 학부모 설문에서도 충청이 50.5%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울산·경남 19.7%, 대구·경북 18.6%으로 영남 지역 선호가 높았고 강원은 6.4%, 호남은 4.8% 등이었다. 의대 정원 확대에 향후 의대 선호도가 더 커질지 전망을 묻자 긍정 응답이 90.5%에 달했다. ‘매우 그렇다’ 46.5% ‘그렇다’ 44.0% 순이었

다. ‘변화 없다’는 4.1%, ‘그렇지 않다’는 5.2%, ‘전혀 그렇지 않다’는 0.2%에 불과했다. 의사 공급이 확대되면 향후 의대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질 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엇갈렸다. 긍정 응답이 37.8%(그렇다+매우 그렇다), 부정 응답이 32.6%(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변화 없다는 29.7%로 세 응답이 엇비슷하게 나왔다. 이공계 특수목적고인 과학고와 영재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지에 대한 전망도 엇갈렸다. 긍정하는 학부모가 응답자의 36.9%, ‘변화 없다’가 36.5%였다. 반대로 낮아질 것이라고 답한 학부모는 26.6%였다. 이날 종로학원은 의대 정원이 앞으로 유지된다면 학생 수 감소로 향후 매년 의대 합격선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고3 수험생은 41만5183명이다. 학원 측은 여기에 수능 응시자(72.8%)와 자연계열 선택과목 응시자(51.7%)를 감안하면 이공계열 학생 수를 15만6141명으로 추계했다. 늘어나는 의대 총 정원(5058명)은 이렇게 추산한 이공계열 고3 학생 전체의 3.2%에 해당한다. 2000명 증원 이전에는 2.0%였는데 1.2% 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출생아 수를 반영해 추계하면, 처음 30만명대로 하락하는 2017년생(35만 7771명)인 올해 초1은 이공계 전체 3.8%까지 의대 합격선이 하락한다. 20만명대 출생아로 하락한 2020년생(27만 2337명)이 대학에 갈 땐 4.9%까지 내려가고 2023년생(23만명)에게는 5.8%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게 학원 예측이다. **이슬비기자**



경복궁에 매화꽃이 활짝 피었어요

맑고 포근한 봄날인 3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관광객들이 활짝핀 매화꽃 나무아래서 기념촬영을 하며 봄을 만끽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4월 5일(금) ~ 6일(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선거일 투표

4월 10일(수)

오전 6시~오후 6시

후보자 정보 확인
info.nec.go.kr

정책·공약 확인
policy.nec.go.kr

후보자 토론회 다시보기
debates.go.kr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많은 땀방울이 모여 지켜지는 소중한 권리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